

교과서에 실린 예시 단어의 사용 빈도와 전형성 분석

—2011 중학교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파생어’ 내용을 중심으로

정지현 고려대학교(제1저자)

김승정 잠실고등학교

신희성 고려대학교(교신저자)

- I. 머리말
- II. 분석 대상 교과서와 예시 단어 분석의 기준
- III. 예시 단어의 빈도와 전형성 분석 결과
- IV. 예시 단어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V. 맺음말

I. 머리말

문법 교육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 단원에서는 개념 설명과 함께 다양한 언어 자료를 다루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 중 분석 대상 언어 단위로 ‘예시 단어’를 선택하여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파생어 예시 단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윤구희(2009), 남가영(2013)과 같은 기존의 연구에서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에서 파생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예시 단어들이 선정되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즉,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성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언어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통해 그 교육 목표를 살펴보겠다.

(1) 7차, 2007, 2011 교육과정에서 단어 형성법 관련 성취 기준

가. 7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단어 형성법 관련 성취 기준

[8 - 국 - (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이 내용은 국어의 조어법에 대해 아는 학습자가 어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체계적으로 어휘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낱말을 형성하는 단위 알기, 낱말을 형성하는 방법 알기, 국어 낱말의 종류 알기 등의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 . .

나. 2007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단어 형성법 관련 성취기준

[8 - 문법 - (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내용 요소의 예]

- 단어 형성과 관련된 국어의 특질 이해하기
- 형태소와 단어 개념 이해하기
- 단어의 짜임(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이해하기
- 단어 형성법을 알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다. 2011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단어 형성법 관련 성취기준

(5)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다양한 단어들에 대한 국어 인식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새말의 특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일상적 국어 생활의 양상을 자각하고 단어의 세계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국어 단어 형성법을 먼저 이해시킨 뒤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다양한 새말들의 단어 형성 방법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

국어의 단어 형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 목표는 단어 형성법(또는 조어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1가)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조어법을 안다.”, (1나)의 2007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한다.”, (1다)의 2011 교육과정에서는 “단어의 짜임을 분석”,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이해”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남기심 · 고영근(1993/2005: 191)에서는 단어 형성법을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가 붙거나 실질형태소끼리 모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형태소가 결합하여 복합어가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과 각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형태소인지의 성질에 대한 분류가 기본적인 교육 내용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시 단어는 이러한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어야 한다.¹ 이는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 명시했던 (1나)의 2007 교육과정에서 “단어의 짜임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단어들”로 언급된 바 있다. 이때 예시 단어가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선정 되도록 하는 기준들이 필요하게 된다.

예시 단어들에 대한 논의를 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기준들 중에 하나는 ‘빈도’인데 이는 윤구희(2009)의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바 있다.² 윤구희(2009)에서는 조남호(2002)를 근거로 하여 사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날음식, 풋과일, 헷밤, 헷병아리, 덧버선, 덧신’ 등과 같은 단어를 교과서에서 예시 단어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용 빈도가 낮으면 난이도가 높아 어휘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지고, 이로 인해 단어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구희(2009)에서는 예시 단어의 빈도와 난이도를 함께 조사했는데, 빈도가 낮은 ‘햇나물’, ‘날음식’, ‘풋과일’ 같은 단어들은 김광해(2003)에서의 어휘 등급상 난이도도 높았다.

두 번째 기준은 ‘전형성’인데, 전형성은 본고에서 설정한 개념으로, 파생어 중 전형성이 높은 예시 단어는 분석에 있어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적은 것을 말한다. 남가영(2013)에서는 분석의 난이도가 높은 언어 자료를 예시 단어로 사용하면, 학습자가 파생법과 파생어의 개념 이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남가영(2013)에서 ‘분석의 난이도가 높은 언어 자료’로 판단한 것은, 중학교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파생어 구성으로 ① 통사적 구성에도 결합 가능한 접사가 사용된 ‘꽃답다, 향기롭

1 이것이 본고의 필자들이 현재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 형성과 관련한 교육 목표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이 구성될 것 이므로 어떠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든 해당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에 적합한 예시 단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빈도’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해당 언어 단위의 양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최근 말뭉치 언어 학의 발전과 대규모 말뭉치 구축 성과에 힘입어 언어 교육에서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빈도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장의 2.1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 자연스럽다, 사나이답다’³ ② 결합형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사장님, 사람들’, ③ 공시적 분석에서 접사+접사로 분석되는 ‘풋내기’, ④ ‘-없-’의 접사성이 논란이 되는 ‘재미없다’, ⑤ 한자가 사용된 ‘표정’ 등이다. 교과서에서 사용된 이러한 예시 단어들은 ‘탐구 활동’이 아닌 ‘개념 이해’ 영역에 있어서는 학습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습자가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뿐만 아니라 송철의(2001) 등과 같은 기존의 논의에서 접두사는 관형사, 부사, 명사, 용언 어간, 어근과 접미사는 어미, 의존 명사, 보조사, 명사, 용언과 판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우리의 분석 대상 교과서에 실린 예시 단어 중에도 이와 같은 접사 요인 또는 단어 요인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빈도’와 ‘전형성’의 두 기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 두 기준인 ‘빈도’와 ‘전형성’은 모두 단어 형성 단원에서 학습 목표인 단어 형성 법의 개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시 단어들을 지적하여 비판하며 나온 기준이다. 즉, 본 연구의 범위는 단어 형성법 중 특히 파생법 개념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서 사용된 예시 단어에 대한 ‘빈도’와 ‘전형성’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3 접사를,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의 통사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통사적 접사(=지배적 접사)와 어휘적 접사(=한정적 접사)로 분류하기도 한다(고영근, 1989/1999; 왕문용·민현식, 1993; 남기심·고영근, 1993/2005; 이관규, 2012). 그러나 남가영(2013)에서는 ‘통사적 접사’라는 용어를 김창섭(1984), 고창수(1985), 임홍빈(1989), 시정곤(1993)에서 논의된 대로 핵 그 이상의 투사에 접미되는 접사, 즉 통사적 구성을 결합되는 접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의미의 통사적 접사에 반대되는 개념인 어휘적(형태적) 접사는 핵에 직접 부착되는 접사 즉 형태성 구성에 결합되는 접시를 말한다. 그러나 7차에서 2011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모두 분석한 남가영(2013)과는 달리 본고는 2011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남가영(2013)에서와는 달리 ‘통사적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예시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고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II. 분석 대상 교과서와 예시 단어 분석의 기준

1. 분석 대상 교과서

본 연구에서는 2011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 14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I장의 (1나)에서 살펴본 단어 형성 관련 내용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에 대하여 14종 모두에서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 중 3종은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국어1’ 교과서에서, 나머지 11종은 1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국어2’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을 살고 있었다. <표 1>에서 교과서와 단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출판사	저자	학년	학기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
1	(주)교학사	남미영 외 18인	교학남	국어2	2. 단어의 갈래와 짜임새 (1) 단어의 짜임새
2	두산동아	전경원 외 12인	동아전	국어2	3. 단어와 품사의 이해 (1) 단어 형성법과 새말
3	두산동아	이삼형 외 16인	동아이	국어2	4. 단어의 세계 (2) 단어의 짜임
4	(주)미래엔	윤여탁 외 22인	미래윤	국어2	2. 재미있는 우리말 (2) 단어의 짜임
5	비상교과서	이관규 외 19인	비상이	국어2	5. 단어와 자료 (2) 단어의 짜임 이해하기
6	비상교육	김태철 외 27인	비상김	국어2	4. 낱말과 놀기 (2) 단어 만들기
7	비상교육	한철우 외 18인	비상한	국어2	4. 단어야 놀자 (1) 단어 형성법
8	좋은책신사고	우한용 외 19인	좋은우	국어2	3. 단어의 형성과 품사 (1)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2) 단어의 짜임
9	좋은책신사고	민현식 외 19인	좋은신	국어2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2) 우리말의 생김새
10	(주)지학사	방민호 외 21인	지학방	국어1	3. 재미있는 단어의 세계 (2) 단어 만들기

11	창비	이도영 외 11인	창비이	국어1	3. 품사와 단어의 짜임 (2) 단어 만들기
12	천재교육	노미숙 외 16인	천재노	국어2	1. 정보의 세계/ (3) 단어의 짜임
13	천재교육	박영록 외 15인	천재박	국어2	3. 단어와 품사 (1) 단어의 짜임과 형성
14	천재교파서	김종철 외 16인	천재김	국어1	5. 단어야, 놀자 (1) 단어 쪼개기

분석의 대상으로 ‘새말의 생성’과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단어 형성 관련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새말의 생성’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는 본고의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개념 학습의 차원을 넘어 선 활동에 대해서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또한 본고의 연구 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까지는 교과서에서 문법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 문법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을 본문으로 먼저 제시하고(표 2의 영역②-㉠) 이에 대해 적용하고 심화하는 활동이 뒤따르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2007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을 거치며 개념 설명에 있어서도 설명문 형태의 본문 대신에 활동들을(표 2의 영역②-㉡)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단원에서도 14종 중 6종이 설명문이 아닌 활동을 통해 개념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개념 이해’와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활동을 통해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에 사용된 단어들 또한 분석에 포함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본문이 설명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에서 후속 활동 중 개념 학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영역③-㉠) 또한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문에서 활동을 통해 개념을 익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후에 후속 활동으로 익힌 개념을 확인하는 활동(영역③-㉡)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도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고의 분석 대상의 범위를 밝히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교과서 분석의 범위

분류	영역①	영역②	영역③	영역④
설명식(⑦)	전(활동)	중(설명)	후(활동) + 개념	후 + 탐구
활동식(⑧)	전(활동)	중(활동)	후(활동) + 개념	후 + 탐구
← 분석 범위 →		제외		

분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역④는 ‘단어 형성’, ‘파생어’, ‘어근’, ‘접사’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영역④에서 접사의 의미를 탐구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표 3>에서는 영역①②③④에 대하여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실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 영역①②③④에 대한 교과서 내용

영역①-⑦(비상한)	영역①-⑧(천재김)
<p>단원을 열며</p>	<p>준비 활동 1 다음 한화의 빈 일봉선을 채워 보자.</p> <p>다음 한화의 빈 일봉선을 채워 보자.</p> <p>(1) 다음 버스에는 바잉이 다른 단어들이 바고 있다. 이 단어들을 '1~4번 철유장'의 조건에 맞추어 나누어 보자.</p> <p>2 꿀벌알기에서 '영어' 대신에 답할 수 있는 말을 마음에 보자.</p>
영역②-⑦(비상이)	영역②-⑧(동아전)

영역③-(창비이)	영역③-(천재노)																																				
<p>2 다음 표에 제시된 단어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 표시를 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단어의 종류를 말해 보자.</p> <table border="1">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여기서 여군으로 이루어졌다.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었고 여군은 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여군 앞에 결합되었다. 결사가 여군 위에 결합되었다.</td> <td></td> <td></td> <td></td> </tr> <tr> <td><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d></td> <td></td> </tr> <tr> <td>단어의 종류</td> <td>파생어</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여기서 여군으로 이루어졌다.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었고 여군은 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여군 앞에 결합되었다. 결사가 여군 위에 결합되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어의 종류	파생어							<p>생각 모으기</p> <p>지금까지 그의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p> <p>❶ 이 단원에서는 단어의 패턴을 분석하고 새단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보았다. 배운 내용을 미리리 더 다듬 단어들을 조건에 따라 분류해 보자.</p> <table border="1"> <tbody> <tr> <td>소나무</td> <td>보리밥</td> <td>맏아들</td> <td>나비</td> </tr> <tr> <td>하나의 여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td> <td>여기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어 있는가?</td> <td>여기 여군 위에 결합되어 있는가?</td> <td>여기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어 있는가?</td> </tr> <tr> <td>단일어</td> <td>복합어</td> <td></td> <td></td> </tr> <tr> <td>파생어</td> <td>합성어</td> <td></td> <td></td> </tr> </tbody> </table>	소나무	보리밥	맏아들	나비	하나의 여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어 있는가?	여기 여군 위에 결합되어 있는가?	여기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어 있는가?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여기서 여군으로 이루어졌다.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었고 여군은 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여군 앞에 결합되었다. 결사가 여군 위에 결합되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어의 종류	파생어																																				
소나무	보리밥	맏아들	나비																																		
하나의 여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어 있는가?	여기 여군 위에 결합되어 있는가?	여기 여군과 여군이 결합되어 있는가?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영역④-(미래운)	영역④-(동아이)																																				
<p>3 다음 단어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 접사가 지닌 의미를 추측하여 써 보자.</p>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포: 일어도 좋을 깔데없는 것. 교질: 아무 키이거나 심술궂은 일에 입 얹어 도는 철. 균활: 하지 않아도 좋은 깔데없는 균형끼기 말. <p>→ 군- 깔데없는-</p>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매우: 양이 황전히 깨지 봉하다. 설마보다: 충분히 아니까하게 바르다. 설인디: . <p>→ 설- 설마- 설인-</p>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씨름꾼: 뼈를 깔리는 사람. 사냥꾼: 사냥하는 사람. 또는 사냥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이기꾼: <p>→ -꾼 -이이기-</p>	<p>4 다음은 온라인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잘 보고, 일출 친 말의 단어 형성 방법을 분석해 복사해 보세요.</p> <p>창수: 이제 어디 간것이야? 멀쩡 전에 빌린 자갈개 놓아주려고 너희 집에 갔는데 개정도 비어 있고, 아무도 없더라. www 유미: 아니- 너 할머니 댁에 갔나 왔지? “이제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 그걸 몇 개가 되지? 늘 그렇잖아? 창수: 아, 그걸 몇 개가 되지? 늘 그렇잖아? 유미: 특별한 건 없었어. 할머니가 강박증을 해 주어서 많이 먹고 있어. 근데 밥이 먹여서 그런지 낮잠을 잤는데 개꿀을 했어. www 창수: “엥?” 무슨 꿈? 유미: 내가 집에서 쟁반군을 먹고 날개가 있어서 힘들 나는 꿈이었어. 창수: 진짜 개꿈이구나~! ::::: 유미: 진짜 개꿈이구나~!</p> <p>❶ 일출 친 단어를 ‘개’와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 썼습니다.</p> <p>❷ 위 ❶에서 나누어진 ‘개’를 뜻하는 바가 같은 단어끼리 끊어 봅시다.</p> <table border="1"> <tbody> <tr> <td>꽃봉우리를 뜻하는 어근 “꽃”</td> </tr> <tr> <td>긴단한 도구의 뜻을 띠하는 접사 “-개”</td> </tr> <tr> <td>좋지 않은 뜻을 띠는 접사 “-개”</td> </tr> </tbody> </table>	꽃봉우리를 뜻하는 어근 “꽃”	긴단한 도구의 뜻을 띠하는 접사 “-개”	좋지 않은 뜻을 띠는 접사 “-개”																																	
꽃봉우리를 뜻하는 어근 “꽃”																																					
긴단한 도구의 뜻을 띠하는 접사 “-개”																																					
좋지 않은 뜻을 띠는 접사 “-개”																																					

2. 예시 단어 분석의 기준

2.1. 빈도

빈도는 해당 언어 단위가 텍스트에 출현하는 양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 (김한샘, 2013). 코퍼스 언어학의 발전과 함께 국내에서도 다양한 말뭉치가 구축되었고 2007년에는 원시 말뭉치 기준 약 6000만 어절 규모의 21세기 세종계획이 완료되어 균형성과 대표성을 갖춘 말뭉치로 빈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 교육 분야에서 빈도는 교육용 어휘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Bauer & Nation, 1993; 강현화, 2006; 서혁 외, 2014). 일반

적으로 빈도가 낮을수록 어려운 단어로, 빈도가 높을수록 쉬운 단어로 여겨져 빈도가 높은 단어를 먼저 가르치고 빈도가 낮은 단어를 나중에 가르친다(김광해, 1993; 강현화, 2006). 윤구희(2009)에서 빈도가 극히 낮은 단어가 파생어 교육 내용의 예시 단어로 선정된 것에 대해 비판했던 것은 파생어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감에 더해 해당 단어의 의미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주장이 적절하다고 본다.⁴

윤구희(2009)는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8학년 2학기 ‘생활 국어’ 교과서에 단어 형성법 단원에 제시된 예시 단어들에 대하여 조남호(2002)의 빈도 조사와 김광해(2003)의 등급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조남호(2002)는 150만 어절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빈도 조사이고⁵ 이후에 더욱 확장된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된 작업의 결과물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생어에 대한 빈도 분석은 강범모·김홍규(2009)를 토대로 하였다. 강범모·김홍규(2009)는 21세기 세종 계획 국어기초자료 구축 결과인 1500만 어절의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기반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에서 형태소와 단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접사 분석에서 추가로 김한샘(2013)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는 강범모·김홍규(2009)에서 접사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몇

4 이것이 빈도가 낮은 단어는 파생어 교육 내용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파생어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러한 단어들을 다루는 것은 어휘력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빈도가 낮은 파생어에 대한 교육, 접사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교육 등이 어휘력 확충을 교육 목표로 했을 때 가능한 교육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에서와는 다른 기준에서 예시 단어가 선택될 것이다. 그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어휘력과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로 홍부남(2003)이 참고할 만하다.

5 말뭉치의 정확한 규모는 1,531,966어절이다(조남호, 2002).

몇 접사만을 선택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는 교과서에 사용된 모든 접사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한샘(2013)의 연구 성과가 가장 참고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한샘(2013)은 교육용 접사 선정을 위해 명사·파생 접미사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 빈도 조사의 대상 말뭉치는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의 결과이다. 그런데 김한샘(2013)이 접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접두사에 대한 분석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범보·김홍규(2009)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2.2. 전형성

앞서 서론에서, 파생어 예시 단어의 ‘전형성’은 파생어 분석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단어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생어에서 이는 보통 접사의 처리 문제가 될 것이다. 즉, 해당 접사가 접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접사의 범주 자격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민현식(1994)은 파생접사가 범주 내적으로 문법적 형태소류와 어휘적 형태소류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 또는 어휘 형태소의 어느 한쪽에 소속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며 이들을 위해 ‘어휘문법형태소’라고 하는 제3의 형태소 개념을 설정하였다. 정병철(2012) 또한 어근, 접두사, 접미사, 격조사, 보조사, 어미 등 형태소들 간에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로 이분할 수 없는 연속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의미적인 측면에서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파생접사는 범주 내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교과서에 사용된 단어 혹은 접사 중에서 기존의 국어학 또는 국어교육 연구물에서 전형적이지 않다고 지적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III. 예시 단어의 빈도와 전형성 분석 결과

1. 빈도 분석 결과

빈도 분석은 파생어 내용의 개념 학습을 위한 예시 단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므로 특히 접사와 해당 접사의 파생형을 대상으로 빈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다루어진 내용이 접사와 파생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 외에 어근의 빈도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IV장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그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한다.

1.1. 접두사와 접두파생어

조사 결과 19개의 접두사와 60개의 접두 파생어가 집계되었다. 강범모 · 김홍규(2009)에서는 고유어 접두사가 그 목록의 풍부함에 비해 대부분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ㄱ) 비교적 생산성이 높고 ㄴ) 접두사를 제외한 형태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접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유어의 경우 ‘날-, 맟-, 맨-, 풋-, 한-, 혀-’의 6개의 접사가 이에 해당한다. 접두 파생어의 경우 60개의 단어 중 대부분은 파생 명사였으므로 강범모 · 김홍규(2009)의 결과 중 ‘일반 명사’에서 확인하였고, 다섯 단어는 동사에서(덧바르다, 짓누르다, 짓밟다, 치솟다, 헛돌다). 두 단어는 형용사에서(새파랗다, 시퍼렇다) 확인하였다.

1) 접두사

접두사 목록인 <표 4>와 접두 파생어 목록인 <표 5>에서 ‘종수’는 이 접사 및 접두 파생어가 실린 교과서의 종수를 말한다.

표 4. 교과서에 실린 접두사 목록

접두사	종수 (순위)	빈도 (순위/ 전체)	접두사	종수 (순위)	빈도 (순위/ 전체)	접두사	종수 (순위)	빈도 (순위)	접두사	종수 (순위)	빈도 (순위)
한-	2(11)	1819 (44/125)	풋-	10(1)	119 (89/125)	차-	3(6)	-	만-	1(15)	-
헛-	4(5)	691 (66/125)	햇-	9(2)	-	개-	2(11)	-	불-	1(15)	-
맨-	9(2)	619 (68/125)	덧-	8(4)	-	짓-	2(11)	-	시-	1(15)	-
맡-	3(6)	153 (86/125)	군-	3(6)	-	침-	2(11)	-	흘-	1(15)	-
날-	3(6)	129 (87/125)	새-	3(6)	-	늦-	1(15)	-			

접두사의 경우 분석 대상 접사 6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 -’이 1819 빈도로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 접두사는 교과서 단 2종에서만 예시 단어로 사용되었고 그 단어 또한 ‘한여름, 한겨울’ 두 종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것은 먼저 ‘헛 -, 맨 -’이었다. 600~700의 빈도로 강범모 · 김홍규(2009)의 분석대상 125개 접사 중 각각 66, 68번째의 순위를 보였다. ‘맡 -, 날 -, 풋 -’은 100~200의 빈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교과서에서 각각 9종, 8종으로 다른 접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강범모 · 김홍규(2009)에서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햇 -’과 ‘덧 -’의 경우는 그 파생형의 평균 빈도 또한 8, 4.2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접두 파생어

표 5. 교과서에 실린 접두 파생어 목록

항목	단어	종수	빈도	항목	단어	종수	빈도
1	치솟다	4	323	31	덧신	5	10
2	맨발	4	221	32	풋파일	3	8

3	짓밟다	1	201	33	맨입	1	7
4	한여름	1	195	34	햇파일	3	7
5	참기름	1	170	35	풋사과	10	6
6	짓누르다	1	167	36	풋사랑	2	5
7	시퍼렇다	1	151	37	덧벼선	3	2
8	새파랗다	3	144	38	풋마늘	1	2
9	한겨울	1	128	39	풋밤	1	2
10	맨손	8	113	40	풋잠	1	2
11	헛기침	1	92	41	풋호박	1	2
12	참뜻	1	72	42	홀눈	1	2
13	맡아들	3	61	43	덧저고리	1	1
14	헛수고	1	58	44	민낯	1	1
15	풋고추	5	49	45	풋김치	3	1
16	헛일	1	41	46	풋감	1	1
17	개떡	1	38	47	풋병아리	1	1
18	군소리	3	38	48	풋보리	1	1
19	불호령	1	34	49	햇밤	5	1
20	풋내기	3	27	50	햇감자	2	1
21	맨땅	1	25	51	햇고구마	1	1
22	맨주먹	1	23	52	개철쭉	1	0
23	덧바르다	1	19	53	풋벼	1	0
24	개살구	2	18	54	풋거름	1	0
25	참사랑	1	15	55	풋과실	1	0
26	풋콩	1	15	56	풋나물	1	0
27	햇병아리	1	15	57	풋대추	1	0
28	날고기	3	14	58	풋머루	1	0
29	헛돌다	1	12	59	풋살구	1	0
30	늦봄	1	10	60	풋향기	1	0

접두 파생어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교과서에 실린 60개의 접두 파생어 중 파생 동사가 5개, 파생 형용사가 2개, 나머지 53개가 모두 파생 명

사에 해당했는데, 평균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적어도 교과서에 실린 접두 파생어에 한해서는 파생 동사(144.4)와 파생 형용사(147.5)는 파생 명사(29.0)에 비하여 빈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⁶ 파생 명사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맨발(221), 한여름(195), 참기름(170), 한겨울(128), 맨손(113) 등이었다. 이와 반대로 덧버선(2), 풋김치(1), 햇밤(1), 개철쭉(1)과 같이 0에서 2의 빈도에 해당하는 극저빈도 단어들 또한 교과서에서 예시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파생 접두사에 하나의 파생형 결과만이 다루어진 ‘군소리’, ‘날고기’, ‘늦봄’, ‘맏아들’, ‘민낯’, ‘불호령’, ‘새파랗다’, ‘치솟다’, ‘흘눈’을 제외하면 접사별 2개 이상의 파생형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빈도와 가장 높은 빈도의 파생형을 살펴보면, ‘짓 -’ 파생형[184/짓밟다], ‘한 -’ 파생형[161.5/한여름], ‘새 - / 시 -’ 파생형[147.5/시퍼렇다], ‘참 -’ 파생형[85.7/참기름], ‘맨 -’ 파생형[77.8/맨발], ‘헛 -’ 파생형[50.75/헛기침], ‘개 -’ 파생형[18.7/개떡], ‘덧 -’ 파생형[8/덧바르다], ‘풋 -’ 파생형[5.5/풋고추], ‘햇 -’ 파생형[4.2/햇병아리]이었다.

1.2. 접미사와 접미 파생어

조사 결과 11개의 접미사와 53개의 접미 파생어가 집계되었다. 강범모·김홍규(2009)에서는 접두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 대상 접미사 역시 선정하였다. 이 중 교과서 접사 목록과 겹치는 것은 ‘-꾼, -님, -장이, -쟁이, -질’의 다섯 개였다. 접미 파생어 53개 모두는 파생 명사였다. 파생 형용사, 파생 동사, 파생 부사는 교과서에서 개념 이해를 위한 예시 단어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6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표 5>의 접두파생어 목록에서 각각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명사의 평균 빈도이다. 이후 기술에서도 () 기호 안에 표시한 것은 빈도를 의미한다.

1) 접미사

접미사의 경우 김한샘(2013)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접두사와는 달리 교과서에 실린 접미사 전체에 대하여 빈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에서 김한샘(2013)의 빈도를 상단에, 강범모 · 김홍규(2009)에서 분석된 6종의 빈도는 하단에 표시하였다.

표 6. 교과서에 실린 접미사 목록

접미사	종수 (순위)	빈도 (순위/전체)	접미사	종수 (순위)	빈도 (순위/전체)	접미사	종수 (순위)	빈도 (순위/전체)
-이	5(5)	2548 (3/42) -	-개	9(1)	175 (12/42) -	-장이	1(8)	14 (27/42) 260 (84/125)
-님	1(8)	1940 (4/42) 16257 (9/125)	-꾼	8(3)	84 (17/42) 2905 (35/125)	-보	4(7)	7 (31/42) -
-기	1(8)	1085 (6/42) -	-쟁이	9(1)	63 (19/42) 842 (64/125)	-뱅이	1(8)	5 (35/42) -
-질	8(3)	213 (11/42) 3717 (32/125)	-꾸러기	5(5)	18 (26/42) -			

빈도가 높은 접사에는 ‘-이’, ‘-님’, ‘-기’를 꼽을 수 있겠다. 각 접두사의 파생형인 ‘길이(1156), 넓이(235), 놀이(1613), 먹이(743), 높이(920)’, ‘손님(2500), 따님(44)’, ‘읽기(102)’ 모두 높은 빈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중 ‘손님’은 빈도가 2500으로 매우 높은 빈도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빈도가 높은 접사인 ‘-이’, ‘-님’, ‘-기’의 교과서 사용 종수를 살펴보면, ‘-이’는 5종에서, ‘-기’, ‘-님’의 경우는 1종에서 다루고 있었다.

‘-꾸러기’, ‘-보’, ‘-뱅이’, ‘-장이’는 낮은 빈도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들 접사의 파생형 중 접미사 ‘-보’의 파생형 ‘먹보, 잠보, 꾀보’와 접미사 ‘-

장이’의 파생형 ‘구두장이’의 경우는 1 또는 2의 극히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들 각 접사의 파생형이 교과서에 사용된 종수를 살펴보면, ‘-꾸러기’와 ‘-보’ 같은 경우는 각각 5종과 4종의 교과서에서, ‘-뱅이’와 ‘-장이’는 1종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다.

2) 접미 파생어

표 7. 교과서에 실린 접미 파생어 목록

항목	단어	종수	빈도	항목	단어	종수	빈도
1	손님	1	2500	32	장난꾸러기	3	38
2	놀이	2	1613	33	소리꾼	2	34
3	길이	2	1156	34	가리개	1	28
4	높이	1	920	35	미장이	1	28
5	날개	1	876	36	짐꾼	1	25
6	먹이	2	743	37	걸레질	2	24
7	손질	1	315	38	말썽꾸러기	2	21
8	일꾼	2	308	39	가위질	4	18
9	사냥꾼	1	274	40	육심쟁이	2	14
10	넓이	2	235	41	잠꾸러기	1	12
11	베개	1	224	42	울보	1	9
12	구경꾼	1	174	43	요술쟁이	1	6
13	도둑질	3	150	44	육쟁이	1	6
14	읽기	1	102	45	심술쟁이	1	5
15	멋쟁이	4	90	46	양복장이	1	4
16	덮개	6	76	47	육심꾸러기	1	4
17	나무꾼	7	69	48	찜질	1	4
18	털보	2	69	49	구두장이	1	2
19	지우개	7	57	50	먹보	2	1
20	겁쟁이	3	55	51	잠보	2	1
21	부채질	1	54	52	침질	1	1
22	따님	1	44	53	꾀보	1	0
23	게으름뱅이	1	41				

접미 과생어 중, 손님(2500), 놀이(1613), 날개(876), 손질(315), 일꾼(308), 읽기(102)와 같은 단어들은 100 이상의 빈도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 중 손님(2500), 길이(1156), 놀이(1613)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의 빈도 결과를 보여 주어 다른 접미 과생어의 빈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먹보(1), 잠보(1), 꾀보(0), 구두장이(2), 침질(1) 같은 경우는 0-2의 저빈도 단어에 해당하였다.

파생 접미사에 하나의 파생형 결과만이 다루어진 ‘계으름뱅이’, ‘읽기’를 제외하면 접사별 2개 이상의 파생형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빈도와 가장 높은 빈도의 파생형을 살펴보면, ‘-님’ 파생형[1,272/손님], ‘-이’ 파생형[933.4/놀이], ‘-개’ 파생형[252.2/날개], ‘-꾼’ 파생형[147.3/일꾼], ‘-질’ 파생형[80.9/손질], ‘-쟁이’ 파생형[29.3/멋쟁이], ‘-꾸리기’ 파생형[18.6/장난꾸리기], ‘-보’ 파생형[16/털보], ‘-장이’ 파생형[11.3/미장이]이었다.

2. 전형성 분석 결과

2.1. 접사

1) 다른 범주와의 경계가 모호한 접두사⁷

표 8. 다른 범주와의 경계가 모호한 접두사 목록

항목	접사	경계 범주	관련 논의	종수 ⁸
1	늘-	어근	송철의(2001), 김한샘(2013-)	1
2	침-	명사	김한샘(2013-)	2

7 이양혜(2006)에서는 접두사가 접미사에 비해 어근과의 구별 문제에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접두사 형태소가 접미사에 비해 의미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어근과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 그 의미 약화의 정도가 약한 형태소들은 범주 구분이 모호하게 된다. 송철의(2001)에서는 이를 접두사가 실질형태소로부터 발달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8 해당 접사가 실린 교과서의 종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표 8>에서 ‘늦-’은 송철의(2001)와 김한샘(2013 ㄱ)에서, ‘참-’은 김한샘(2013 ㄱ)에서 지적된 것이다. ‘늦-’은 1종의 교과서에서, ‘참-’은 2종의 교과서에서 예시 단어로 사용되었다. 김한샘(2013 ㄱ)에서는 (2ㄱ)은 용언의 관형사형, (2ㄴ)은 용언의 어간, (2ㄷ)은 명사, (2ㄹ)은 부사와 형태와 의미가 같은 것들로, 이러한 예들이 접사의 자격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어근과 접사 구분의 모호성과 관련된 예들(김한샘, 2013 ㄱ)

ㄱ. 선(-), 잔(-)

ㄴ. 늦(-)

ㄷ. 걸(-), 겹(-), 먹(-), 수(-), 암(-), 즐(-), 참(-)

ㄹ. 막(-)

송철의(2001)에서는 ‘늦-’에 대해 용언 어간과 판별이 모호할 수 있는 요소로 언급한 후 그러나 ‘늦공부, 늦가을, 늦더위, 늦봄, 늦장가’ 등으로 명사와의 결합이 생산적이라는 이유로 접사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덧붙여 용언 어간이 명사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일이 예외적임을 언급했다.

2) 다른 범주와의 경계가 모호한 접미사

표 9. 다른 범주와의 경계가 모호한 접미사 목록

항목	접사	경계 범주	관련 논의	종수
1	-님	보조사/ 의존명사	구본관(1998) 심혜령(2007) 이관규(2012)	1
2	-기	어미	송철의(2001)	1

‘-님’은 1종의 교과서에서 ‘손님’, ‘따님’의 예시 단어를 사용해 다루어졌다. ‘-님’에 대해서 이를 접미사로서의 성격이 모호함을 지적한 연구물들이 다수 존재했다(구본관, 1998; 심혜령, 2007; 이관규, 2012) 이관규(2012)에

서는 ‘-님’을 포함한 ‘-들, -쯤, -짜리, -님’과 같은 것들은 “거의 모든 체언에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 과연 단어를 형성시키는 접미사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일단 접미사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가장 보조사적인 유형의 접미사라고 지적하였다.

‘-님’의 성격에 대해 이전 연구물에서 지적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님’은 품사는 바꾸지 않지만 (3)과 같이 결합으로 인하여 통사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남기심 · 고영근, 1993/2005).

(3) 선생님이 벌써 오신다(오시ㄴ다)

둘째, ‘-님’은 앞에 오는 어기에 따라⁹ 그 쓰임을 달리한다. 이는 심혜령(2007)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씨, 군’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의존 형식 ‘-님’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4ㄱ)의 의존명사와 (4ㄴ)의 접사의 두 가지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다.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님’에 대한 문법적 정보

ㄱ. 님01「의존명사」(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 홍길동 님/길동 님/홍 님.

ㄴ. 님04「접사」

「1」(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사장님/총장님.

「2」(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

9 심혜령(2007)에서는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언어 형식 ‘어근’, ‘구’, ‘문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의 용어를 따라 ‘어기’가 아닌 ‘어근’을 사용하지만 심혜령(2007)의 논의에서 사용되는 ‘어기’는 ‘어근’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으므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는 접미사.

¶ 달님/별님/토끼님/해님.

「3」(옛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공자님/맹자님/부처님/예수님.

‘-기’에 대해서는 송철의(2001)에서 접미사인지 어미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의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음, -기’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들이 모두 동사나 형용사의 명사형인 활용형이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함에 따라(이익섭, 1965; 최형용, 1997; 송원용, 1998) ‘-음, -기’를 접미사로 처리할지의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송철의(2001)에서는 결론적으로 ‘-음, -기’에 대해 “-음, -기’에 의한 새로운 단어 형성이 현대 국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접사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 ‘-기’에 대하여 파생 접미사와 어미라는 두 범주로 보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쟁점이 되므로 분석에 있어 논란이 되는 요소이다.

2.2. 파생어

교과서에서 예시 단어로 사용된 파생어 중 문제되는 것은 접두사 ‘풋-’의 파생형으로 제시된 ‘풋내기’이다. ‘풋내기’는 총 3종의 교과서에서 예시 단어로 사용되었다. ‘풋내기’는 공식적인 분석에서는 접두사 ‘풋-’과 접미사 ‘-내기’의 결합형이다. ‘-내기’는 그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용언의 어간에서 접미사화한 것으로 ‘나-+ -기>-나기>-내기’로 된 것이다(손춘섭, 2014). 이양혜(2005)에서는 ‘풋내기’와 같이 공식적으로 ‘접사+접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막둥이, 알짜, 좀팽이’와 같은 단어들을 ‘특이형태 파생 명사’라고 이름 붙이고 이 부류에 속하는 단어들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을 토대로 ‘접사+접사’ 구성 중 하나의 접사가 과거에 어근이었던 형태들임을 밝혀

내었다. 이 단어들의 형성이 어근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당시에 일어났을 수 있지만 현대에도 해당 접사에 내재해 있는 어근성으로 인해 단어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양혜(2005)의 관점에서는 ‘풋내기’ 또한 ‘접사+접사’로서 파생어 형성에서 예외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어근+접사’라고 처리 한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교과서에 사용된 ‘풋내기’ 또한 ‘접사+어근’의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풋-’과 ‘-내기’ 모두 교육용 접사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 설명에서 사용되기에 전형적인 예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IV. 예시 단어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1. 빈도 관련 논의

1.1. 빈도에 따른 예시 단어 재검토

빈도가 낮은 단어들, 특히 위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었던 빈도 0, 1, 2의 극저빈도 단어들은 예시 단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 그 와 같은 단어들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낯선 단어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빈도가 더 높은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예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개살구’, ‘맨손’, ‘덧신’, ‘풋사과’, ‘햇밤’, ‘덮개’, ‘나무꾼’, ‘가위질’과 같은 단어들의 사용에도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¹⁰ 2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살구’보다는 1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떡’

10 다만 이러한 단어들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전에 국어학 개론서나 7차 <문법> 교과서 등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별도의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풋고추’와 ‘풋사과’에서 ‘고추’보다 ‘사과’가 가지는 이미지가 보다 긍정적인 턱에 ‘풋사과’가 선택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 8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맨손’보다는 4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맨발’이, 5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덧신’보다는 1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덧바르다’가, 10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풋사과’보다는 5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풋고추’가, 5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햇밤’보다는 1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햇병아리’가, 6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덮개’보다는 1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날개’, ‘베개’가, 7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무꾼’보다는 2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꾼’과 1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경꾼’, ‘사냥꾼’이, 4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위질’보다는 3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둑질’과 1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질’이 빈도가 더 높다. 같은 조건의 빈도가 더 높은 단어가 있음에도 관습적으로 해당 접사의 대표형처럼 많은 교과서에서 예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예시 단어의 선택에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다.

각 접사별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파생형보다 빈도가 더 높은 단어가 존재한다. ‘군-’은 군침(66), 군살(41), ‘날-’은 날벼락(56), 날것(39), ‘늦-’은 늦가을(131), 늦잠(81), ‘덧-’은 덧문(58), 덧칠(51), ‘맏-’은 맏딸(157), ‘한-’은 한가운데(608) 등이 있다.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러한 단어들을 새롭게 예시 단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1.2. 접사 빈도 또는 파생어 빈도와 어근 빈도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단어 형성 개념 이해를 위한 예시 단어 중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빈도에 대해 살폈다. 특히 그중에서도 파생어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접사와 해당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의 빈도만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파생어의 빈도는 접사뿐 아니라 어근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해당 부분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관련성이 본 연구의 해석

‘맨발’과 ‘맨손’에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가능성에 대한 추측일 뿐이며 문법 교과서에 사용되는 예시 단어들이 어떠한 이유로 선정되는지에 대해 교과서 개발자를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후고를 기하기로 한다.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점검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표 5>에서 살핀 접두 파생어 목록의 고빈도 15개와 저빈도 15개 단어를 대상으로 해당 단어의 어근 빈도를 함께 살핀 내용을 아래 표로 제시한다.¹¹

표 10. 교과서에 실린 접두 파생어 목록과 어근 빈도

항목	단어	종수	파생어 빈도	어근 빈도
1	치솟다	4	323	645
2	맨발	4	221	3699
3	짓밟다	1	201	1323
4	한여름	1	195	2656
5	참기름	1	170	839
6	짓누르다	1	167	1566
7	시퍼렇다	1	151	101
8	새파랗다	3	144	505
9	한겨울	1	128	2637
10	맨손	8	113	11953
11	헛기침	1	92	470
12	참뜻	1	72	7945
13	믿아들	3	61	5335
14	헛수고	1	58	443
15	풋고추	5	49	629
...				
46	풋감	1	1	248
47	풋병아리	1	1	299
48	풋보리	1	1	485
49	햇밤	5	1	208
50	햇감자	2	1	452

11 연구를 진행하면서 접두 파생어 및 접미 파생어와 해당 단어 어근의 빈도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본 절의 논의는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에 한정하고자 하는바 일부 파생어 목록만 제시한다.

51	햇고구마	1	1	243
52	개철쭉	1	0	26
53	풋벼	1	0	542
54	풋거름	1	0	113
55	풋과실	1	0	105
56	풋나물	1	0	233
57	풋대추	1	0	173
58	풋머루	1	0	36
59	풋살구	1	0	40
60	풋향기	1	0	943

고빈도 15개의 접두 파생어는 대체로 어근 역시 상당한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저빈도 15개의 접두 파생어는 어근 빈도가 대체로 1000을 넘지 않고 있었으며, 26, 36, 40처럼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인 어근도 있었다. 즉 큰 경향성에서는 어근 빈도가 접두 파생어의 빈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접두사로는 ‘한-’(1819)이 ‘맨-’(619)보다 높은 빈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어로는 ‘맨발’(221)이 ‘한여름’(195)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는 현상 역시 어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별’의 빈도는 3699인 반면 ‘여름’의 빈도는 2656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접두 파생어 빈도 1위인 ‘치솟다’의 어근 빈도는 645에 불과한 반면, 접두 파생어 빈도 10위인 맨손의 어근 빈도는 11953에 달한다. 이는 접두 파생어 빈도가 0인 ‘풋향기’의 어근 빈도가 943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뿐만 아니라 ‘시퍼렇다’의 경우 오히려 어근인 ‘퍼렇다’의 빈도가 접두 파생어 빈도보다 낮기도 하다. 또한 ‘한-’과 ‘맨-’ 사이의 빈도 차이를 어근이 역전시켰던 것처럼 ‘기침’(470)과 ‘아들’(5335)의 빈도 차이를 접두사 ‘햇-’(691)과 ‘맏-’(153)이 역전시키는 예 역시 존재한다.

이처럼 파생어 빈도와 어근 빈도 사이에는 분명 관련성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보다 파생어의 빈도는 접사 빈도와 어근 빈도 양자에 상호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파생어 선정에서 빈도에 대한 고려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²

2. 전형성 관련 논의: 빈도와 전형성의 불일치

‘-님’ 명사파생과 같은 경우는 전형성과 빈도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님’은 접미사로서 전형성이 낮지만 ‘님’의 파생형 ‘손님’은 빈도가 2500에 달하는 고빈도어이다. ‘-기’ 또한 접사로 처리할지의 여부가 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지만 ‘-기’ 파생형 ‘읽기’는 빈도 102로 교과서에 실린 파생형 중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에 교과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념 이해 단계가 아닌 탐구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러면 파생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학습자의 언어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를 교육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12 Booij(2007: 233-235)에서는 심적 어휘부에 대해 논하면서 활성화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어기 빈도 효과(base frequency)와 누적 어근 빈도 효과(cumulative root frequency) 외에도 단어들의 가족 규모(family size)를 들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어의 접사와 파생어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예컨대, 접두사 ‘헛-’은 빈도가 691이고 접두사 ‘맨-’은 빈도가 619인 반면, 접두 파생어 헛기침의 빈도는 92이고 ‘맨발’이나 ‘맨손’의 빈도는 각각 221, 113이다. 접사의 빈도와 접두 파생어의 빈도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691과 619 사이에 얼마나 유의한 차이가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때 가족 규모 역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맨-’이 결합한 단어는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31개이다. 반면 ‘헛-’이 결합한 단어는 180개이다. ‘헛-’의 규모가 더 큰 것은 ‘헛-+ -결음’이 다시 ‘헛결음하다, 헛결음질, 헛결음질하다, 헛결음치다’ 따위로 재생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인데 가족 규모로 봤을 때 ‘헛-’이 훨씬 큰 생산력을 보이고 있음을 분명하다. 이는 ‘맨-’ 결합형은 명사밖에 없는 것과 달리 ‘헛-’ 결합형은 ‘헛보다, 헛씹다’나 ‘헛되이’와 같이 보다 여러 품사의 단어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V. 맺음말

이상에서는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 파생어 내용을 설명하면서 실린 예시 단어의 빈도와 전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범위를 교과서 개념 이해 영역에서 다루어진 예시 단어로 국한하였다. 빈도와 전형성 분석 결과, 빈도에 따라 예시 단어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때 접사 빈도와 파생어 빈도뿐만 아니라 어근 빈도 또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논의되었고 빈도와 전형성에 있어 그 정도가 불일치하는 단어의 경우 개념 이해 단계가 아닌 탐구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는데 후속 작업으로 높은 빈도와 전형성이 실제로 학습자의 파생어 개념 이해와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개념 이해의 영역이 아닌 탐구 학습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예시 단어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단어 형성 단원의 목표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김규훈 · 김혜숙, 2012; 황화상, 2012) 어떠한 목표가 설정되든 해당 목표에 근거한 단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 단어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 본 논문은 2015. 7. 31. 투고되었으며, 2015. 8. 4. 심사가 시작되어 2015. 8. 2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범모 · 김홍규(2009), 한국어 사용 빈도, 한국문화사.
- 강현화(2006), 「어휘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495-5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고영근(1989/199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창수(1985), 『어간형성접미사의 설정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김광해(1993), 『어휘론 개설』, 집문당.
- _____ (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집문당.
- 김규훈 · 김혜숙(2012), 「담화 중심의 단어 형성법 교육 방안—학습자의 새밀 소통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8-126,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 145-161, 진단학회.
- 김한샘(2013 ㄱ), 「국어 파생어 교육 연구」, 『배달말』 53, 339-426, 배달말학회.
- _____ (2013 ㄴ), 「교육용 접사 선정을 위한 명사 파생 접미사 빈도 연구」, 『언어와 문화』 9-1, 21-4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남가영(2013), 「학습자 오개념 형성 요인으로서의 교과서」, 『우리말 글』 57, 109-137, 우리말글학회.
- 남기심 · 고영근(1993/200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민현식(1994), 「형태론의 주요 개념과 문법 교육」, 『선청어문』 22, 111-1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서혁 · 권순희 · 김정우 · 김은성 · 정소연 · 이은희 · 신명선 · 강용철(2014),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 국립국어원.
- 손춘섭(2014), 「국어 어원별 접사화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45, 31-67, 한국어의미학회.
- 송원용(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3, 국어연구회.
-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시정곤(1993), 『국어의 단어 형성원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혜령(2007), 「학습사전에서의 접사 처리의 문제」, 『겨레어문학』 38, 5-30, 겨레어문학회.
- 왕문용 · 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윤구희(2009),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 『중등교육연구』 57-1, 187-211,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이관규(2012), 『학교 문법론』, 월인.
- 이양해(2005), 「한국어 특이형태 파생명사 형성 연구」, 『언어과학』 12-1, 138-158, 한국언어과학회.
- _____ (2006), 「우리말 접사의 형태론적 고찰」, 『우리말연구』 19, 85-111, 우리말학회.

- 이익섭(1965),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121-129, 국어국문학회.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167-196,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정병철(2012), 「형태소와 단어의 불분명한 경계에 대한 학교 문법의 처리 방안」, 『청립어문교육』 46, 513-544, 청립어문교육학회.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148, 국어연구회.
- 홍부남(2003), 「단어 형성법을 통한 어휘력 신장 지도」, 『초등 국어교육』 13,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연구소.
- 황화상(2012), 「형태론 교육과 교과서—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7, 61-90, 한국어학회.
- Bauer, L., & Nation, P. (1993). Wor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6(4), 253-279.
- Booij, G. (2007). *The grammar of words: An introduction to morpholog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교과서에 실린 예시 단어의 사용 빈도와 전형성 분석

정지현 · 김승정 · 신희성

이 연구에서는 2011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 14종을 대상으로 하여서 단어 형성법 단원 파생어 내용을 설명하면서 실린 예시 단어의 빈도와 전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범위를 교과서 개념 이해 영역에서 다루어 진 예시 단어로 국한하였다.

파생어 사용 빈도 분석 결과, 접두 파생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개는 차례로 ‘치솟다(323), 맨발(221), 짓밟다(201), 한여름(195), 참기름(170)’이었고 사용 빈도가 0-2인 파생형이 ‘덧버선, 풋김치, 개철쭉’ 등 24개가 있었다. 접미 파생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개는 차례로 ‘손님(2500), 놀이(1613), 길이(1156), 높이(920), 날개(876)’이었고 사용 빈도가 0-2인 파생형이 ‘구두장이(2), 먹보(1), 잠보(1), 침질(1), 꾀보(0)’의 5개가 있었다. 전형성 분석 결과, 접사에서는 다른 범주와의 경계가 모호한 접두사로 ‘늦-’, ‘참-’이 있었고 다른 범주와의 경계가 모호한 접미사로 ‘-님’, ‘-기’가 있었다. 파생어에서는 공식적으로 ‘어근+접사’ 구성이 아닌 파생어 ‘풋내기’가 교과서에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빈도와 전형성 분석 결과 빈도에 따라 예시 단어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때 접사 빈도와 파생어 빈도뿐만 아니라 어근 빈도 또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논의되었고 빈도와 전형성에 있어 그 정도가 불일치하는 단어의 경우 개념 이해 단계가 아닌 탐구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핵심어 교과서, 파생어, 예시 단어, 사용 빈도, 전형성

ABSTRACT

A Study of Frequency and Typicality of Example Words Used in Textbooks

Jeong Jihyeon · Kim Seungeong · Shin Hees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frequency and typicality of example words used in textbooks. We use 14 textbooks corresponding 2011 educational curriculum for analysis and the unit we examined was about word formations, especially derived words. the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areas of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The result of analysis of derived words is summarized as follows. Top 5 derived words by prefix on frequency were ‘치솟다(323), 맨발(221), 짓밟다(201), 한여름(195), 참기름(170)’, and ‘0-2’ frequency were 24 words included ‘덧버선, 풋김치, 개칠쪽’ etc. Top 5 derived words by suffix on frequency ‘손님(2500), 놀이(1613), 길이(1156), 높이(920), 날개(876)’, and ‘0-2’ frequency were ‘구두장이(2), 먹보(1), 잡보(1), 침질(1), 꾀보(0)’. The result of analysis of typicality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prefixes which blur the boundaries were ‘늦-’, ‘참-’, and the suffixes were ‘-님’, ‘-가’. Also, There is a ‘풋내기’ which was not composed of ‘root+affix’ synchronically.

We discussed about result of analysis of frequency and typicality. 1) Example words used textbook must be reexamined on results of analysis of frequency. 2) The root frequency is also concerned. 3) Words which have the discrepancy between frequency and typicality are included in areas of inquiry learning not understanding of concepts.

KEYWORDS Textbook, Derived word, Example word, Frequency, Typicality